

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태수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「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3개 시도 2,600만 국민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광역시설로 2024년 말 사용이 종료 될 예정입니다.

지난 2015년 6월 체결한 「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」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(제3, 4매립장) 중 3-1공구(103만 m^2)를 사용하고,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·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. 다만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

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%(106만m²)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

- 서울시는 그간 매립면허권 양도·양수 신고 완료,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의 이전, 반입수수료 가산금(50%) 지원 및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구성 등 최종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.
- 올해 6월에는 3개 시·도 단체장 명의로 「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환경부와 3개 시·도 공동 추진 정책건의문」을 환경부에 제출하였고, 11월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「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」을 의결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.
- 수도권매립지는 건설 당시부터 환경부의 주도로 관리해온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 관련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환경부가 통제하는 등 지도·감독의 역할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.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문제는 비단 3개 시·도만의 문제가 아니며, 이를 위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쓰레기 대란

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.

□ 동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

환경부가 ‘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공동 참여할 것’과 ‘대체매립지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지원 등 정부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’ 및 ‘대체매립지를 현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로 인식할 것’ 등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